

# 오늘 4사 TV 토론...설 연휴 직후 대선판 뒤흔들까

**이재명, 정책우위 입증  
윤석열, 대장동 파헤치기  
안철수, 양강 허물기 주력  
심상정, 정치적 존재감 각인**

중반전에 접어든 대선 판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초박빙 접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열리는 4사 TV 토론이 주목되고 있다. 민주당 이재명, 국민의힘 윤석열, 국민의당 안철수,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 4인이

맞붙는 이번 TV 토론 결과가 전체 판세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. 이에 따라 여야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 이번 TV 토론이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, 만반의 준비에 나 서고 있다. 당장, 이재명, 윤석열 후보는 이번 TV토론을 통해 승기를 잡겠다고 버리고 있는 반면 안철수, 심상 정 후보는 반전의 계기로 만들어낸다는 각오다. 특히, 양강 후보인 이재명,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가 최 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. 이 후보 측에서는 이번 토론에서 확고한 정책 우위를 입증, '준비된 경제 대통령' 모습을 보이며 반 등의 모멘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.

여기에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행정가 면모 를 부각, 정치적 경험과 실행력이 있는 후보라는 점 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. 이 후보는 윤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'검증'이라는 이룸으 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. 이런 가운데 '달 뉘' 이미지가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한 공격보다는 검증은 하되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견 지한다는 전략이다.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이번 TV 토론을 통 해 정책에 있어서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보여준다 는 입장이다. 특히,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인 부 동산 문제 등 경제 분야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 를 제시하며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 '열공'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윤 후보는 비록 7분에 불과하지만 자유주제에 대 한 주도권 토론 시간을 활용, 이 후보를 상대로 대 장동 의혹 관련 질의도 최대한 하기 위해 단단히 버 르고 있다. 특히, 이재명, 안철수, 심상정 후보 등의 집중 공 격에 대비, 외교, 국방 등 취약 분야에 대해 철저한 방 어 논리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.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 방점은 '양강 구도 허물기'에 쩌릴 전망이다. 이재명-윤석열 후 보가 역대 최고 비호감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서 자신은 '깨끗하고 유능한 후보'임을 내세워 차별 화 하겠다는 전략이다. 이를 통해 양자 구도를 허물어 3강을 굳히겠다는 것이다. 특히, 이재명-윤석열 후보의 '퍼주기 공

약'을 집중 비판하는 한편, 연금개혁, 노동개혁 등 양강 후보들이 취약한 전문 분야를 집중 공략할 것 으로 알려졌다.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번 TV 토론을 통해 유 권자들에게 진보 정당 주자로서의 정치적 존재감 을 각인시킨다는 전략이다. 특히 '심상정이 대신 물어드립니다' 캠페인을 통해 집약한 어젠더와 질 문 등을 통해 민심의 갈증을 해소시킨다는 계획이 다. 이를 통해 '2강 1중'의 틈새에서 존재감을 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. 특히, 심 후보는 정평이 난 날 카로운 질문을 통해 양강 후보에 대한 검증도 버려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/임동욱 선임기자 tuim@kwangju.co.kr

## '정치적 시나리오' 없었지만...이재명-김동연 연대설 고개

양자 토론 계기...민주, 김동연 손잡고 중도층 공략 가능성도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새로운물결 결 김동연 대선 후보와 첫 토론에 나서면서 두 후보가 모종의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. 양측은 표면적으로는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 하지만, 정치이념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손잡 는 그림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. 민주당은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공식적으로는 선 을 긋고 있다. 이날 토론의 의미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양자 토론이 불발된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정 책 토론을 벌인다는 대비 효과에 방점을 찍었다.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당사에서 의 간담회에서 "오늘 토론은 후보 단일화나 그 이 후 어떠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전제 로 한 게 아니다"라면서 "윤 후보는 거부했으나 이 후보는 김 후보 제안을 받아들여 진행된다는 의미 가 있다"고 밝혔다. 우 본부장의 발언에서는 이번 토론을 바라보는 민 주당 지도부의 속내가 읽힌다. 지지를 받던 모멘텀 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이 후보는 김 후보와의 연대 를 통해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중도층 공략 에 나설 수 있다. 김 후보는 박근혜정부의 첫 국무조 정실장과 문재인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를 지내는 등 진보·보수 정부에서 국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. 그러면서도 지난 9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'삼 프로TV'에 출연해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부동산 정책을 두고 청와대 정책라인과 충돌이 극심했다 고 털어놓는 등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평가 받는 부동산 정책에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. 청계천 판잣집에서 자랐고 상고와 야간대를 나온 '출수저' 신화도 자산이다. 이러한 이력을 가진 김 후보와의 연대가 중도층 을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. 송영길 당 대표도 김 후보를 향해 "최소한 인간 의 도리는 지키는 분"(1월 31일 오마이뉴스TV 유 튜브 방송)이라고 말하는 등 꾸준한 러브콜을 보 내고 있다. 민주당의 이러한 구애는 김 후보가 끝

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시 양천 목동 CBS에서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. /새로운물결 제공

까지 '독자 원주'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과도 맞 물려 있다. 그러나 김 후보 측은 대선일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. 김 후보측 송문의 대변인은 통화에서 "이번 토론은 각 대선 후보에게 똑같이 제안했는데 제일 먼저 받아들인 것이 이 후보라서 제일 먼저 하는 것"이라고 설명했다. 송대변인은 "(대선까지) 한 달 남았지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끝까지 달린다는 것이 공식 적인 김 후보의 입장"이라고 설명했다. /연합뉴스

## '2월 추경 국회' 스타트...처리 시점·증액 동상이몽

설 명절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'2월 추경 국회'의 막이 올랐다.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 임위원회의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고,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는 7일부터 진행되는 일정이다. 이에 연휴 이후 여야의 추경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 작될 예정이다.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5일 전에 추경안 처리를 한다는 목표다. 당 지 도부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예정보다 앞당 기고위를 열어 '속도전'을 천명했다. 윤호중 원 내대표는 "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빨라야 할 때"라 면서 "특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이전 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설 연휴가 끝나는 3일부 터 밤샘 심사를 해도 빠듯한 일정"이라고 말했다.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짠 시간표에 얽매 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.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 계자는 2일 통화에서 "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인 14 일까지도 추경 협의가 안 되면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없다"면서 "민주당이 정부와 답합해 강행 처 리 하거나, 아니면 대선을 마치고 추경해야 할 것이

라고 했다.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야 직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15일을 '데드라인' 으 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. 이처럼 여야가 추경안 처리 속도를 각기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데에는 대선 전 추경 편성 및 집행 여 부에 따른 표심 득실 계산이 엇갈리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. 추경 규모를 놓고도 여야는 겉으로 증액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를 외치면서도 생법은 전 혀 다른 동상이몽(同床異夢)의 상황인 셈이다. 민주당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 손실 보상 강화와 코로나 방역 보강 등을 위해 이번 추경 규모를 35 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. 국민의 힘은 정부안인 14조원에 '플러스 알파'로 32조~ 35조원가량을 더해 총 50조원 안팎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민주당은 차기 정부의 지출 조정과 초과 세수분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국제 발행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. 또 정 부 설득에 앞서 여야가 먼저 추경 규모를 확정하자 는 입장이어서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. /연합뉴스

## 유근기 곡성군수,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

전남서 구충곤·정현복 이어 세번째 유근기(61) 곡성군수가 2일 차기 지방선거 불 출마를 선언했다. 유 군수는 이날 임정문을 내고 "군수직을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군수로서 제 역할은 민선 7 기까지임을 밝힌다"며 "(저는) 6월 있을 제8회 지 방선거에 곡성군수로 나서지 않겠다. 수많은 시 간, 밤잠을 설치며 '나이가 갈 때와 물러날 때'를 고민 한 끝에 내린 결론"이라고 밝혔다. 유 군수는 "지금까지 곡성 발전을 위해 깊은 고 뇌와 긴장 속에 살아왔다.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쏟겠다"며 "오는 7월이

되면 평범한 군민으로 돌아가지만, 항상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저의 경험과 역량이 필요한 곳이라면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하겠다"고 말했다. 6·1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이날 현재 전남지역 현역 기초단체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구충곤 (63) 화순군수, 정현복(72) 광양시장에 이어 유 근수가 세 번째다. 셋 모두 재선 단체장이다. 구 군 수와 유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정 시장은 지난해 부동산 비리 의혹에 휩싸여 민주당을 탈당 했다. /김형호 기자 khh@kwangju.co.kr /곡성=박종태 기자 pjt@kwangju.co.kr

**꼭! 받아야 할 돈 회수**

※ **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 
못 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!**  
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.  
**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.**

**절대 선 수 금 없음**  
출장비용

(채산조사비,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)

- 채무자 재산, 신용·주거래은행·차량 등 파악
- 실거주지 파악 가능
-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

**전문추심인  
직접관리**

판결문, 공증·공사대금·각서·운송료·차용증  
거래장부·계약서·입금 내역·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
**24시간 상담가능**

**중앙신용정보**  
010-2860-4700  
직통전화 062)521-4109

**전원주택 개발부지**  
담양읍, 다가구, 사옥 등 다양도 부지, 임야, 매매

-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**  
담양 금성,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
•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타브집 129㎡(39평)  
• 토지 8,098㎡(2,452평)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
•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
•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
-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림 조성 20여년생 8중 1천5백주 포함**  
• 순창, 금과,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.C 근접  
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,190㎡(2,780평)  
• 느티나무,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중 1천5백여주 조성 가능 포함  
• 전원주택단지, 물치장, 펜션, 가든,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 
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㎡ 9만원
- 3 다가구, 고급주택, 사옥 등 다양도 부지(주거 2중)**  
•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 조성지 근접  
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점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 
다가구 사옥 다양도 부지 4,220㎡(1,276평) 매 9십만원
-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**  
(1)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, 취락마을 용지 포함.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 
광주간 25분 소요, 임야 76,000㎡(22,990평) 구내옹달샘  
전원주택지 귀농·귀촌·휴양지 적합 매 6천원  
(2) 담양,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,810㎡(19,000평)  
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, 휴양지  
농기주택 가능 매 5천원

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-5(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)  
대표 김명주 010-3454-2389

녹동~거문도 1시간20분  
**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**

거문도 백도 당일  
**89,000원**

☺ 여/행/문/의

|메이투어  
062)385-0515  
|아이티여행사  
062)382-8866

• 후원: 삼도해운, 플래티늄 • 승선문의: 061)834-3434